

글쓰기 교육에서의 소수자 담론

변화영*

차례

1. 글쓰기 교육과 소수자 문제
2. 저쪽과 이쪽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탈북자
3. 종족성과 국민성 사이에서: 중국조선족
4. 무적과 국적의 갈림길에서: 재일한인
5. 맺음말

1. 글쓰기 교육과 소수자 문제

최근의 글쓰기 교육의 경향은 결과 중심의 글쓰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강조하는 데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결과 중심 접근에서는 주제를 제시하고 한 편의 글을 쓰게 한 다음 완성된 글에서 잘못된 점(문법이나 수사학적 규칙)을 지적해 주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비해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글쓰기 과정, 즉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표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글쓰기 행위를 일종의 문제해결 행위로 간주한다.¹⁾ 문법이나 수사학적 규칙에 의거한 표현의 정확성보다는 의미의 구성을 강조하면서 독자를 염두에 두는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은 학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객원연구원

1)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2002, 15쪽.

습주체가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글쓰기는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다.²⁾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서 학습주체는 개인적 체험기, 연구보고서나 평론, 그 무엇을 쓰든지 그 주제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거나 글을 썼던 그 누군가와 대화적 양상에 놓이게 된다.³⁾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표현해 나가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주체는 남의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사고를 확대하며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 맞게 독자를 예상하면서 문제해결적 방법으로 글쓰기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소수자를 담론화한 글이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문제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점검하면서 정체성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려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소수자들은 영토, 종족, 언어 혹은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서 배제된 채 떠돌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근대사회의 주류집단, 즉 다수자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다. 그러므로 탈근대사회이자 초국가주의 시대에 소수자를 배제한 채 기존의 논리에 따라 다수자로서의 '나'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정체성 정치의 폭력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는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인권 문제를 통해 그 사회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학생 '나'가 내용을 조직하여, 표현하며, 검토하고, 수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글쓰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

2) 린다 플라워, 원진숙·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동문선, 2006, 31쪽.

3) 위의 책, 23쪽.

서는 아직까지도 근대적 시각에 입각한 채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글쓰기 교재에서 소설작품은 창의적 글쓰기의 성격을 살펴보거나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그 인용된 작품들은 학습주체인 대학생들에게 다수자로서의 '나'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할 뿐, '우리' 안의 소수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글쓰기가 대학생 '나'가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 중심의 교양 과목이며⁴⁾ 교양 없는 이 시대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교양 고양의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한다면,⁵⁾ 그 교재에는 '나'가 필연코 만나는, '우리' 안의 소수자를 형상화한 소설작품이 좋은 글로 예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나'의 정체성이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서만 일어나는 단일한 체험들과 기억들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문화적, 정치적 여건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중층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초국가주의 시대에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이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⁶⁾이므로, 단일민족, 백의민족 등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시각이 내재된 민족 개념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다. 게다가 탈근대사회에서 소수자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한계보다는 생애의 어떤 한 시점 혹은 기간에 겪게 되는 보편적 경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에 다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습주체 '나' 또한 언제든지 소수자가

4)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대학에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134-135쪽.

5) 김주언,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61쪽.

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사, 2002, 25쪽.

될 수 있다. 생존여건의 변화는 구성원 대다수로 하여금 적어도 생애의 한 부분에서 소수자 되기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탈근대사회, 초국가주의 시대는 소수자 되기가 보편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경계 '밖'에서 살거나 그곳을 넘나드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일이란 곧 국민국가 경계 안에 존재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국민국가 형성으로 파생된 경계 때문에 '우리'라는 범주에서 강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와 다른 공간 혹은 다른 국가에서 소수자로 전락하거나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비한국인' 소수자들이 있다. 탈북자, 중국조선인, 재일한인 등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수자로, 이들이 '비한국인' 소수자가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한인의 식민경험과 분단경험이 맞물려 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지 않았다면 중국조선인이나 재일한인처럼 강제적 이산에 의한 디아스포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분단과 전쟁이 없었더라면 탈북자라는 비자발적 이산에 의한 디아스포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조선족이든, 재일한인이든, 탈북자든 이들 디아스포라들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디아스포라들은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조선족은 중국이, 탈북자는 북한이, 그리고 재일한인은 한국 혹은 북한이 이들의 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다름'으로 인해 이들은 정체성의 정치에서 소외된 채 정주국에서도 고국에서도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국적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경계로 인한 '비한국인' 소수자의 정체성 문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나'와 '우리'의 역사 및 기억을 재현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

7)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16쪽.

요한 인식통로이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을 다루는 글쓰기 교육에서 '비한국인' 소수자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한국인' 소수자인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 등이 등장하는 『짚레꽃』, 『유랑가족』, 『GO』⁸⁾를 통해 학습주체 '나'가 자기를 어떻게 형성해 가면서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참여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쪽과 이쪽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탈북자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다수자는 자기 정체성 형성을 우선 나를 '나'로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 등의 자기 정체성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통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주국과 고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중층적 모순들을 '국적'을 통해 경험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쪽으로도 소속될 수 없는, 경계를 떠도는 소수자임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탈북자는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들이 한층 복잡한데 그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주가 중국이나 제3국을 거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탈출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의 '탈북자'라는 용어에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그 상관적 짝으로서 '탈남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용어가 대북관계에 따라 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8)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짚레꽃』(2008), 『유랑가족』(2005), 『GO』(2002)는 최근에 발표된 작품들로, 한국사회의 비한국인 소수자 문제가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장애인,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소수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처럼 한국이라는 특수한 국민국가를 전제해야 하는 소수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론화가 미흡하다.

9) '새터민'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는 점에서도 한국사회의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단현실을 내포하면서 '북한' 국적을 나타내는 탈북자만큼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진 용어는 아니다.

탈북자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집단이다. 탈북자는 다른 소수집단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수적 규모에서 작은 집단이지만, 향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탈북자는 외형적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으나 그가 사용하는 말투는 그의 국적이 북한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말하자면, 탈북자들의 북한식 말투가 남한사람들로부터 쉽게 식별되어 이로써 이들의 정체성이 노출되는 표지(標識)가 되는 것이다.¹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탈북자의 북한식 억양이나 말투는 쉽사리 바꾸질 않는다. 이것은 또한 탈북자에게 남한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을 받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나마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 탈북자에게 남한사회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아내기 어려운 고통이다. 특히 기아와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여성 탈북자의 경우, 그것은 여성 억압적 측면과 맞물려 있어 감당하기가 더욱 힘들다. 『질레꽃』에 등장하는 이은미 또한 북한을 탈출한 여성 탈북자이다.

어촌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은미의 원래 이름은 김충심이다. 그러나 김충심은 북한에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금, “이쪽” 사람들은 이은미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충심에서 이은미가 되기까지 그녀는 낯선 공간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전제한 용어이다. 그러나 북한을 넘어온 사람들 모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 난민이 되어 영국이나 미국 등 제3국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삶을 택하기도 한다. 그만큼 한국사회로의 동화와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을 탈출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의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 논문의 논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류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6, 66-67쪽.

블리며 살았었다.

합흥을 떠난 이래, 한반도 땅에 발을 붙여보질 못했다. 중국을 떠돌 때에는 비법월경자였기에 발을 내려놓지 못했고, 한국에 와서는 물에 섞이지 못하는 기름처럼 떠돌았다. 북조선에 있을 때는 충심이었고, 중국에서는 메이 나였다가 별명으로 소소를 얻었고 한국에 와서는 은미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민등록증에도 김충심이 아니라 이은미로 올라가 있다. 한국의 통일부나 국정원에선 어차피 진짜 이름을 조회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은실의 은과 미향의 미를 따서 은미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흑시라도 있을 피해로부터 북의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다.(…)

절레꽃 붉게 피어인 북쪽나라 내 고오오하양, 언덕 위의 초가삼가아안 그 리이입습니다야, 자주 고름 입에 물고오……

꽃잔등이 시큰해지더니 눈앞이 흐릿해졌다. 눈물을 참아내며 느릿하고 나직하게 노래를 마쳤다. 합흥음악학교에서 배운 노래인데, 지금은 노래방 도우미의 십팔번이 되고 말았다. 뼈가 저리도록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슬픔이 삭았다.¹¹⁾

북한 출신의 김충심이 남한의 이은미가 되기까지 그녀는 여러 곳을 거쳐 왔다. 충심은 고향인 합흥을 떠나 남양으로,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농촌으로, 심양(瀋陽)으로 유랑하다 결국 인천에 정착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부모가 지어주신 충심(忠心)이라는 이름 대신 메이나(美娜)로 불렸으며, 별명은 소소(小小)였다. 한국에서는 은미(銀美)로 이름을 바꾸면서 성도 이 씨로 변경했는데, ‘이은미’라는 성명은 탈출을 이유로 북한당국이 가족에게 끼칠 고통을 염두에 둔 개명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지은 이름 ‘이은미’가 낯선 만큼 충심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합흥음악학교에서 배운 ‘절레꽃’을 노래 부르며 충심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달래곤 하지만 그만큼 2차를 나가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현재의 직업에서 오는 회의에 몸서리를 친다.

11) 정도상, 「절레꽃」, 창비, 2008, 200쪽.

충심은 처음 남한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고통은 ‘안녕’이라며 희망에 사로잡혔었다. 그러나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충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탈북자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외국인노동자보다도 차별이 더 심했다.”¹²⁾ 회사든, 공장 이든, 식당이든, 일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충심이 탈북자라고 하면 모두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한 탈북이 아니기에 충심의 설운 감정은 더욱 배가되었다.

충심은 인신매매를 당해 이중사촌 미향과 함께 중국의 오지 농촌으로 팔려갔다. 인신매매단에 의해 흑룡강성의 농촌에서 약담배에 취해 사는 영출과 결혼한 충심은 그곳을 도망쳐 나와 심양으로 건너가 조선족 행세를 하면서 안마사로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족 김화동과 최옥화에게 돈을 꾸어준 것이 빌미가 되어 충심은 추방된다. 탐욕에 매몰된 김화동과 최옥화가 충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요량으로 그녀를 공안 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결국 한국행을 결심한 충심은 한국 선교단에게 거액의 비용을 약속하고 목숨을 건 월경을 감행하였다. 충심은 인간답게 여자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연길에서 북경을 지나 우루무치로 해서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다. 그러나 남한사회 어디에서도 충심의 진정성은 확인받을 수 없다. 남한의 신분증 획득만이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충심은 마침내 한국 국적만으로는 온전한 “이쪽” 국민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저쪽” 북한 국민이었던 이력은 충심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절레꽃』은 일곱 편의 중단편소설로 엮여진 연작소설이다. 작가 정도상은 「겨울 압록강」, 「함흥·2001·안개」, 「늪지」, 「풍풍우우風風雨雨」, 「소소, 눈사람 되다」, 「얼룩말」, 「절레꽃」 등, 7편의 작품들을 흠뻑려 놓은 다음, ‘충심’을 그 산중된 길 위에 존재케 한다. 마치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충심의 삶의 경로를 상징하듯, 정도상은 연작소설의 형식을 통해 여성 탈북자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이 과

12) 위의 책, 202쪽.

정에서 중심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의 실제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중심을 메이나, 소소, 은미로 이름을 바꾸며 살도록 만든 요인은 결국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다.

분단으로 파생된 여러 상황들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할 수 있는 수많은 편견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류사회의 자원과 기회 구조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 연결망이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 행태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외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¹³⁾ 탈북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실업자가 되고 결국 가난한 하류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은 중심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그러하듯 중심 또한 남한사회의 가난한 소수자인 것이다.

중심과 같은 탈북자의 경우, 북한에 있을 때의 '나', 중국에 있을 때의 '나', 남한에 정착했을 때의 '나'는 서로 다르다. 경험도 다르니 기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남한 사회로의 진입을 꿈꾸어 왔지만, 막상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는 남한사회에서도 '나'는 주변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에 불과하다. 경험과 기억은 상대적인 작용을 통해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서 유랑하는 디아스포라로서의 '나'는 결국 늘 경계선상에 있는 소수자로서의 자기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에 관한 혹은 디아스포라의 글쓰기는 현재의 삶이 억압과 폭력에 의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러한 현실의 억압과 폭력을 진경화 하는 글쓰기이다.¹⁴⁾ 디아스포라의 글쓰기는 바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성찰하면서 그 구성원인 '우리'를 소수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계를 떠돌며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는 여러 문화적 정치적 여건들 속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13) 윤인진·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7집 1호, 2006, 83-84쪽.

14) 오연희, 「탐구의 글쓰기, 그 가능한 시나리오: 이산적 글쓰기의 한 모색」, 『인문학연구』 제33권 제1호, 2006. 4, 84쪽.

글쓰기 교육의 학습주체 '나'는 탈북자의 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자기 정체성 형성이란 학습주체 '나'의 문화, 정치적 요건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3. 종족성과 국민성 사이에서: 중국조선족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2백만 명으로 이들은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이주한 월경 개척민들이다. 1880년대 초에 청나라의 봉금령(封禁令)이 철폐되기 약 130년 전부터 조선인들은 중국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이주는 궁핍을 견디다 못한 조선 북부지방 농민들의 월경 잠입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인의 이주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고조되었으며, 지금과 같은 조선족 마을이 정착된 것은 1930년대의 일제 이주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일제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설립을 계기로 조선인을 만주(지금의 중국동북)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논농사 경험이 풍부한 조선인들의 만주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는 그곳이 일본 군국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확충하는 지역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들은 중국 민중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5년 일제가 패망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중국인과 협동하여 해방구를 건설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은 중국 국적을 부여받아 '조선족'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¹⁵⁾ 조선인이 중국인에 의해 중국 공민인 조선족으로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이지 한족의 일원은 아니다. 모든 중국조선족이 소지하고 있는 공민증에 '선족'(鮮族)이라는 두 글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공민증에는 '한족'의 소수집단으로서 조선족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중국 한족의

15) 주봉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2006, 154-155쪽.

타자로서의 조선족이라는 신분은 해방 이후 만주에 잔류하게 된 조선인들과 그 후예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형성¹⁶⁾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개방 이후 한국에서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양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1992년의 한중수교는 중국조선족에게 한국 입국의 징검다리가 되었다. 이미 중국에 몇몇 한국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알게 된 중국조선족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픽을 전후로 하여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한중수교로 약간의 빗장이 열린 중국조선족의 한국행은 이후 언어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문화적으로 가깝고, 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¹⁷⁾로 가속화되었다. 1994년 이후 중국조선족 사회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 바람이 태풍으로 확산된 것은 경제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데 현재 중국조선족 총인구의 5%가 넘는 인구가 한국에 유입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개의 노동이민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중국조선족은 합법적인 입국통로가 매우 제한된 탓에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입국 후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⁸⁾ 합법적인 입국통로가 좁아지면서 새로운 입국방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혼인을 통해서였다. 혼인은 본인의 입국은 물론 부모 초청도 가능하기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조선족들에게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다.¹⁹⁾ 이렇게 해

16)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제국 내 이민 정책의 유산」,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사, 2008, 198쪽.

17) 권태환·박광성, 「한국 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66쪽(높은 임금에 대한 매력은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중국조선족 공동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데도 중국조선족의 인구 유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8) 위의 책, 148쪽.

19) 위의 책, 153쪽.

서 중국조선족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이 적은, 한국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공선옥의 『유랑 가족』에 등장하는 장명화도 이 같은 중국조선족 여성 중 한사람이다.

장명화는 해립 출신 조선족으로 김기석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배사장 뺨에 빠져 남편 돈을 몽땅 털어 가지고 서울로 도망쳐 온 이후로는 이름을 허승희로 바꾸고 가리봉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배사장에 사기당한 채 버림받은 장명화는 중국에 두고 온 딸 생각에 힘겨워 한다. 이미 중국에서 용철과 결혼한 전력이 있는 명화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 처녀라고 속이고 전라도 가난뱅이 기석과 결혼하였다.

화전민 아들인 기석은 그 지역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난뱅이다. IMF가 터지고 소 값마저 폭락하자 형님은 가출하고 시아주머니는 음독자살을 하는 통에 기석은 홀어머니와 조카 숙희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틈에 배사장이 명화를 꼬드겨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결국 배사장에게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명화는 6년 전 '훈춘 삼도구진'에서 한국으로 온 승애가 이제는 돈을 제법 벌어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자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지는 것을 느낀다.

단체 사람의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던 것이 명화는 지금도 후회막급일 뿐이다. 결혼 생각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으면 지금쯤 명화도 외사촌이나 북래반점 승애만큼은 벌고도 남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빠를 그토록 허망하게 저세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때문이었다. 명화더러, 한국 국적 얻으려고 순진한 한국남자 꼬셔서 위장결혼을 했던 게로구나, 하고 말하며 명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 인상이 더 안 좋아지는 거라는 승애는, 저 자신이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교포가 나이 많은 장애인이라고 했다. 승애야 어차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을 테지만 교포라는 남자는 승애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지가 명화는 좀 아리송했다. 승애는 훈춘 삼도구진에서 온 서른 살 노처녀인데, 서울 온 지 올해로 육 년이 되

었다고 했다.²⁰⁾

명화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했으며 힐난하는 승애를 떠올리며 ‘돈 없는 땅 해림을 떠나 돈 있는 땅 한국’으로 왔던 자신을 되돌아본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국 국적 취득형 결혼을 감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명화는 나이 많은 장애인 교포와의 결혼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승애가 부러울 따름이다. 고향 해림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와 딸 향미를 그리워하며 가리봉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아픔을 삭이던 명화는 결국 낯선 사람의 칼에 찔려 돈을 강탈당하고는 죽고 만다.

『유랑가족』에서 중국조선족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가리봉은 7, 80년대 노동자들의 운집지역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거주하던 가리봉은 90년대 이후 중국조선족이 대거 모여 살게 되면서 이들의 경험과 기억이 묻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가리봉이 중국조선족의 거주지역이라는 사실은 중국조선족이 경제적으로 남한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화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 공선옥은 가리봉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위치를 형상화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이 땅에 온 이들이 결국 가난으로 인해 또 다시 빈민계층으로 전락되고 말았음을 통단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종족성(ethnicity)을 믿고 한국 땅을 밟았던 중국조선족은 가난한 중국 출신 교포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에게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차별적 민족성(nationalty)을 경험한다. 가난이 재생산되는 한국사회에서 한국 국적 없는 중국조선족들은 다른 어떤 소수자들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지닌 ‘유랑가족’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돈 없는 중국을 떠나 돈 있는 고국으로 온 중국조선족들은 경제적 디아스포라가 되어 오늘도 중국과 한국의 경계를 넘는 유랑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것이다.

『유랑가족』은 「겨울의 정취」, 「가리봉 연가」, 「그들의 웃음소리」, 「남쪽 바다 푸른 나라」, 「먼 바다」 등, 5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이다.

20)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화사, 2005, 61-62쪽.

『유랑가족』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살거나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유랑가족이 된 가난한 사람들의 체험과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작가 공선옥은 『유랑가족』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들뿐 아니라 중국조선족도 유랑가족이 되게 하는 주류집단의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가난으로 풀어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소수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5편 가운데서도 「가리봉 연가」에는 중국조선족의 삶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장명화가 허석희가 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가리봉’은 그녀가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함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중국조선족은 역사적으로 정주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양식들을 유지함에 따라 근대의 영토 공간에 정착된 정체성을 초월하는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중국조선족이 인식하는 자아는 조선민족을 모태로 한 민족이며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자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중국과 남북조선 사이의 경계 상황에서 실존하는 민족이다.²¹⁾ 이것은 중국조선족이 중국 공민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정체성으로 인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정체성이 분열, 통합, 해체되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국조선족의 다중적 정체성의 고찰은 편협한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초국가적인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디아스포라적 현실로 인해 다중적으로 형성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학습주체인 대학생 ‘나’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 ‘밖’의 세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개방적 존재로 자기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 문제나 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처럼 교양 정신이 구현된 지식의 담론 자체를 교양 없는 시대의 글쓰기 제재로 삼아야²²⁾ 한다면, 중국조선족을 한국사회의 ‘유랑가족’으로 형상화

21) 주봉호, 앞의 글, 156쪽.

한 공선옥의 『유랑가족』은 학습주체인 대학생에게 ‘우리’ 안의 소수자를 인식하게 하는 모범적인 소설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무적과 국적의 갈림길에서: 재일한인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호칭은 분열적이고 논쟁적이다. 재일한인을 지칭할 때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과 ‘재일한국인’이라는 호칭이 애매하게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이 애매성은 ‘조선’과 ‘한국’이라는 용어를 통해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는데, 전자는 ‘민족’을 후자는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때 ‘민족’과 ‘국민’은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재일한국인’에서 ‘한국인’이라는 호칭은 국민적 귀속을 나타내는 한정된 의미인 까닭에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민족성에 기대어 가리킬 때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물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재일한국인’이 타당할 것이다.²²⁾ 재일한인을 둘러싼 이러한 복잡함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삼국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국적 문제는 재일한인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 3세대 재일한인에게 국적은 직업과 결혼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GO』에는 재일한인 2세의 국적에 따른 고민이 연애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GO』의 주인공 스기하라는 삼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일한인 학생이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재일한인 1세로 지금은 파친코에서 경품교환소를 하고 있다. 스기하라의 아버지는 패망한 일본이 1947년 조선인과 대만인 등은 더 이상 일본사람

22) 김주연, 앞의 글, 264쪽.

23)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8, 16-17쪽 참조.

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북조선을 선택하였다. 한반도가 한국과 북조선으로 갈라져 어느 쪽이든 편입되어야 할 처지에서 결정한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 국적을 지닌 '재일조선인'이 된 아버지는 하와이 관광을 가기 위해 스기하라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재일한국인'이 되었다. 세 번째 국적 취득 이유는 간단하다. 북조선은 미국과 수교가 없어서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일 뿐,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국적을 바꾼 것은 북조선보다 한국 국적이 스기하라를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임을 간파한 아버지의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은 아들이 일본 국적을 지닌 귀화인이 되는 것보다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이라도 여전히 일본사회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외국인임에도 스기하라의 아버지는 귀화가 아닌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다. 스기하라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지만 그 또한 '한인'의 피가 흐르는 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당연히 증명서도 갖고 다녀야 한다. 만약 아들이 불시검문에 걸렸다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위법자나 범법자가 되는데도 스기하라의 아버지는 자신과 아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사회의 소수자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요컨대 스기하라의 아버지는 일본사회의 소수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아버지가 하와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자 스기하라는 하와이 여행의 비용으로 공부를 해서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여행은 거절한다. 민족학교에서 '민족의 반역자' 혹은 '배신자'라는 온갖 야유를 견디며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한 스기하라는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재일한인이라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늘 도전의 위협에 놓여 있다.

가토의 생일 초대를 받아 클럽에 놀러간 스기하라는 그곳에서 마주친

사쿠라이를 좋아하게 된다. 사쿠라이와 함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기하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재일한국인임을 고백한다. 하지만 스기하라가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 소유자임을 안 사쿠라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아빠가, 한국이나 중국 남자하고 사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어…….” 나는 그 말을 간신히 몸 속으로 거둬들인 후 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사쿠라이가 입을 다물어버려, 내가 말을 이었다. (….) “그런 게 아니야.” 사쿠라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빠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했어.” 충격은 받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무지와 무교양과 편견과 차별 때문에 튀어나온 말이었을 테니까. 그 엉터리 같은 말을 부정하기는 무척 쉬운 일이었다. 나는 말했다. “너는, 사쿠라이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일본사람, 이 사람은 한국사람, 이 사람은 중국사람이라고 구별하지?” “어떤 식으로라니……?” “국적? 아까도 말했지만, 국적 따위 언제든 바꿀 수 있어.”²⁴⁾

사쿠라이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한국이나 중국 남자하고 사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성장하였다.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의 피가 더럽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피의 이유였다. 스기하라는 어느 특정인을 한국사람, 중국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적에서 비롯된 일이며, “국적 따위 언제든 바꿀 수 있어.”라며 사쿠라이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고 만다. 두어 달 후에 사쿠라이를 다시 만난 스기하라는 “난 누구지?”라고 묻는다. 이에 사쿠라이는 “재일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서 그에게 함께 ‘가자’(GO)라고 외친다. 사랑하는 스기하라를 통해 사쿠라이는 민족의 혈통으로써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주류집단의 정체성 정치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24) 가네시로 카즈키, 김난주 옮김, 『GO』, 현대문학북스, 2002, 180쪽.

사쿠라이 아버지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로서 일본사회의 주류집단을 대표하는 다수자이다. 그는 딸에게 연애 대상으로서 한국 남자나 중국 남자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 의해 '순수한' 일본인의 피가 오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사회의 지배집단이 만들어낸 편견으로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오염된 피를 지닌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타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하려는 고안된 이념일 뿐이다. 일본 국적 정책의 특징으로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혈통주의라는 점²⁵⁾을 고려해 본다면, 제일한인이나 재일중국인이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자연 일본인 사쿠라이와 제일한인 스키하라의 "연애"는 일본사회의 다수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성관계가 되는 것이다.

『GO』는 연애소설이다. 『GO』에 등장하는 스키하라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쯤에서 미리 밝혀두겠는데, 이 소설은 나의 연애를 다룬 것이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 연애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평화주의니 귀족주의니 채식주의니 하는 모든 '주의'에 연연하지 않는다."²⁶⁾고 덧붙인다. 다시 말하면, 스키하라 자신의 연애는 편견과 차별로 범벅된 모든 '주의'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연애라는 것이다. 일본사회의 다수자들이 보기에는 '오염된', 비정상적인 연애가 사실상 가장 '순수한' 정상적인 연애가 되고 있다. 물론 스키하라와 사쿠라이의 연애가 순수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이 '연애'로써 소통하였기에²⁷⁾ 가능한 일이었다. 작가 가네시로 카즈키는 주인공 스키하라를 통해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GO』는 작가 가네시로 카즈키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다. 스키하라는 가네시로를 투사한 인물로, 국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젠가는 반

25) 전형권, 「일본의 보수화와 제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 『한국동북아논총』 제43집, 2007, 115쪽.

26) 가네시로 카즈키, 앞의 책, 9쪽.

27) 황봉모, 「재일한국인의 연애와 정체성: 가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의 『GO』」,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제이앤씨, 2008, 324쪽.

드시 국경을 없애버리겠다”²⁸⁾는 주인공의 생각은 곧 작가의 입장이기도 하다. 요컨대, 가네시로는 국적과 국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은 스기하라와 사쿠라이가 하는 연애훈, 소수자와 다수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 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GO』로서 표현한 것이다. 스기하라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노 소이 코레아 노, 니 소이 하포네스 조 소이 데사라이가도(나는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떠다니는 일개 부초다).”²⁹⁾라는 스페인 말은 곧 작가 가네시로가 무적(無籍)과 국적(國籍) 사이에서 자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단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소통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나’와는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한 결과, 다시 ‘나’가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자신과 타인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통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애를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소통 근거로 삼은 『GO』는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주체 ‘나’가 소수자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글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밖’에 존재하는 한민족이지만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안’에서는 외국인으로 차별받고 있는 스기하라가 스스로를 소수자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변두리적 존재가 아닌 국경 초월의 “부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GO』는 초국가주의 시대에 대학생 ‘나’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중요한 소설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지나치게 자기계발과 창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28) 가네시로 카즈키, 앞의 책, 218쪽.

29) 위의 책, 222쪽.

지 정작 글쓰기 교육의 주체인 대학생들의 정체성 문제와 사회화에는 관심을 덜 쏟고 있다. 글쓰기는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과정이다. '나'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안의 소수자를 통해서 이해가능하다.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한국사회가 탈근대 사회이기 때문이다. 탈근대사회에서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나'는 중심에서 소외된 소수자와 소통하지 않는 한, 자기 정체성 형성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글 쓰는 '나'가 소수자와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없이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전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소수자를 통한 '나는 누구인가'이며, 탈근대사회이자 초국가주의 시대에 '나'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는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혼혈인은 물론,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 등이 있다. 전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수자이지만, 후자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국민국가를 전제해야 하는 소수자이다. 후자의 경우, 탈북자라는 용어를 한국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임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적과 민족이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조선족과 재일한인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국적과 민족성이라는 허울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탈북자는 '우리'와 민족정체성은 동일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된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왔지만 탈북자는 '우리' 사회에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 국적, 민족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변인으로서의 전락은 중국

조선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조선족은 중국 내부에서는 소수민족이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조선족이 된다. 즉, 중국 내부에는 한족(漢族)을 제외한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이지만, 한국으로 건너온 다음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불린다. 이쪽, 저쪽 모두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한' 소수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재일 '한인'이라 부르는 것과 대비된다. 재일한인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 '국적'자가 아닌 한국계 동포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재일한인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인(국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채 '우리'와 민족적 정체성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재일한인은 정주국 일본의 국적 취득 문제가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조선족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탈북자이든, 중국조선인이든, 재일한인이든 이들이 형성하는 자기 정체성이란 두 국가 혹은 세 국가 사이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정치적 여건들 속에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중적 정체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이들 비한국인 소수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은 곧 한국의 현실과 맞물려 있으므로 문제해결 과정의 글쓰기 교육에서 대학생 '나'는 이들의 존재와 자기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글쓰기 교육의 주체인 '나'가 소수자와의 소통이 차단된 채 외눈박이 '주류집단'의 한 사람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도상의 『절레꽃』, 공선옥의 『유랑가족』,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에 등장하는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을 담론화하는 가운데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글쓰기 교육, 소수자, 소통, 탈북자, 중국조선족, 재일한인

<참고문헌>

- 가네시로 카즈키, 김난주 옮김, 『GO』, 현대문학북스, 2002.
-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
- 권태환·박광성, 『한국 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국 내 이민 정책의 유산』,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사, 2008.
- 김주연,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 류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6, 66-67쪽.
-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대학에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 서경식, 김혜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8.
- 오연희, 『'탐구'의 글쓰기, 그 가능한 시나리오: 이산적 글쓰기의 한 모색』, 『인문학연구』 제3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84쪽.
-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16쪽.
- 윤인진·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7집 1호, 2006.
-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2002.
- 정도상, 『질레꽃』, 창비, 2008.
- 정형권, 『일본의 보수화와 재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 『한국동북아논총』 제43집, 2007, 115쪽.

- 주봉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2006.
- 황봉모, 「재일한국인의 연애와 정체성: 가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의 『GO』」,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제이앤씨, 2008.
- 린다 플라워, 원진숙·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동문선, 2006.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사, 2002.

<Abstract>

Discourse of the Minority in Writing Education

Byun Hwa-yeong

For the university student, writing education is an important opportunity and process to retrospect himself/herself and other's life. Writing is premised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oneself and others. However, until now the writing education in the university only focuses upon the expression of self-identity and one's ingenuity. Since writing is a process of self-identifying, it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o am I' and ends on the communication with the one who writes and the other who reads. Until now writing education exposes a little interests on the discourse of minorities. There are so many minorities within and out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ethnicity and nationality or other criteria. They are, for example, the North Korean Defector, Korean-Chinese, and Korean-Japanese. Due to colonialism and Korean War, their identities had been constructed, marginalized or stigmatized by the differences of ideology, nationality and ethnic category in the host countries. But they are another 'we', even though we could understand their diasporic status and hardness only through literatures, novels or other methods. In sum, the existence of 'I' should be recognized and understood by writing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dentity of ourselves and others who are in the status of minority group.

• keywords: writing education, minority, communication, North Korean Defector, Korean-Chinese, Korean-Japanese

* 이 논문은 2009년 1월 31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